

# 진안인삼 무형문화재 지정 추진 장수군, 주요업무 보고회 개최

### 군, 진안인삼 재배 문화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가져

진안군은 지난 16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진안인삼 재배 문화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전춘성 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중간 보고회는 최규영·이상훈 진안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과 정홍기 농촌경제국장, 군청 실과장, 관계 공무원,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 및 의견수렴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연구용역은 진안인삼 재배 문화에 대한 농업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전통성과 역사성을 인정받아 이를 통해 지역 농업문화로써 전승, 보존을 위한 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진안인삼 재배 문화에 대한 기초조사, ▲진안 인삼배배 세부내용, 역사 등에 대한 개관, ▲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한 지정가치 조사, 적합성 및 필요성, ▲인삼재배와



진안군은 지난 16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진안인삼 재배 문화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문화의 효과적인 전승관리를 위한 방안 제언, ▲진안홍삼의 전통제조 방식에 대한 연구 등이다.

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진안인삼 재배의 역사성, 학술성, 기술성, 대표성 등을 규명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여 무형문화재 지정으로 이어져 진안인삼 브랜드 가치 상승은 물론 지역 인삼산

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용역보고회를 통해 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진안인삼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주요업무 보고회 개최

### 중요로운 미래의 땅·힘찬 장수 건설 위한 주요역점 사업 추진

장수군은 군청 회의실에서 12~19일 까지 장영수 군수 주재로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하고 '중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 건설을 통한 주민들이 행복한 군을 만들기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 주요업무 보고회는 12일 주민복지실을 시작으로 전 부서가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문제점 분석,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등의 보고를 했으며, 읍면을 포함한 장수군 전 직원이 청내 방송으로 보고회를 시청해 군정 주요업무를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19일에는 부서 간 업무협의의 시간을 통하여 원활한 군정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장수 5·4·8 정책 세부과제를 수립하여 장수군 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상하였고, 우수형 특별방역 대책 수립으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차단했다.

또한 장수가이역 유치에 위한 달빛내륙철도 국가계획 확정,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장수군 로컬JOB센터 구축사업 최우수상 수상, 천천면 농산물집하장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반기에는 ▲장계 장례식장 건립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장수종합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장수 가이역사관 건립사업 ▲장수 군립도서관 이전 건립사업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사업 ▲장수 누리파크 체험놀이센터 조성사업 ▲장수군 농산물 스마트 융복합타운 조성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할 계획이다.

장영수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과 지친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장수군을 만들기 위해 공직자 모두가 소통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 건설을 위한 주요역점 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읍 도시재생 상생멘토단 위촉

### 군, 지역활성화 방안 연구·예비 창업인 밀착 멘토링 진행

무주군은 지난 16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무주읍 도시재생 상생멘토단(이하 상생멘토단)'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상생멘토단은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청년 및 귀촌 창업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위촉한 것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내 주민과 출향인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역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며 지역리더로서 역할을 해나갈 예정으로, 실제 창업에 필요한 교육·유통·마케팅 지원 등 예비 창업인들을 위한 밀착 멘토링을 진행한다.

신대상 단장은 "상생멘토 단원들 각자 하는 일과 역량대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멘토단 활동이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도시재생에 필요한 인재 육성과 주민 소통기반을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원들은 ▲이웃 간 신뢰구축과 ▲공동체 회복, ▲상생멘토단 확산, ▲청년 창업인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수익창출 아이템을 개발·공유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 등도 결의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 된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무주군은 읍내리 일원에 건강도시 개념(주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는 도시)을 반영한 문화, 예술, 주거, 상권, 관광 등 무주읍만의 특색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에는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를 발족시키고 무주문화창작 공간 조성과 무주 로컬 상권 활성화, 무주 어울림 센터 조성, 무주 주거재생 프로젝트 추진, 숲속 밤빛공원 조성에 대한 사업계획 등도 수립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이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시재생 상생멘토단 여러분이 든든한 파트너가 돼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함께하는 주민복지 도서관 혁신사업 '호응'

무주군이 북 스타트 무주 기본계획에 따라 '함께 하는 주민복지' 서비스를 연중 펼치고 있어 영유아를 둔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함께하는 주민복지'를 위한

도서관 혁신사업이다. 무주군에 거주하는 7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북 스타트 책 꾸러미'를 배부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무주군 7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북 스타트 책 꾸러미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은 도서관

홈페이지(library.muju.go.kr) 또는 전화(063-320-5622)를 통해 가능하다.

지난 5월 27일 북 스타트 작가와 함께하는 문화 구연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오는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오후 7시~9시)까지 총 2회에 걸쳐 학부모를 대상으로 북 스타트 부모 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방역수칙 준수 홍보

장수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는 장수읍 일대에서 소속 공무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수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는 최근 도내 번이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인근 지역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여름철을 맞아 더위진 날씨와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로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방역수칙 준수를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장수시장 상가 및 터미널에서 상인

및 군민들을 찾아 마스크를 배부하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으며, 보건의료원에서 진행되는 결핵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사업에 대한 홍보도 실시했다.

박애순 의료지원과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 날까지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도 철저한 방역과 신속한 선별검사, 체계적인 백신접종으로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군·진안경찰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집중점검

진안군은 지난 16일 군청사, 터미널,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 집중 점검에 나섰다.

군은 행락철을 맞아 사람들이 많이 붐빌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불법촬영의 표적이 될 것으로 판단해 이달 말까지 진안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 첫날인 16일 군은 마이산 북부와 남부 등 유명 관광지 공중화장실을 방문해 점검을 벌였다.

불법 촬영 카메라를 확실하게 발견하기 위해 전문탐지 장비인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까지 활용해 구석구석 살폈다.

군은 집중단속 기간 외에도 불법카메라 설치 우려 장소를 수시로 점검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여성범죄를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공중화장실의 불법카메라 및 침결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한국수자원공사, 용담호 불법 낚시 합동 단속

진안군은 지난 16일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용담호 낚시 금지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섰다

군은 여름철을 맞아 낚시꾼들의 불법 낚시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10월 말까지 2개반 8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주·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진안군은 광역상수원인 용담호 맑은 물 보전과 수질오염행위 차단을 위해 2002년 1월 용담호 호소 일원 저수 면적 32.24㎢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수질감시원 4명과 용담호 광역상수원지킴이 42명을 투입해 상시 순찰하며 광역상수원 안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는 물론 수질 오염행위 차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진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제271회 임시회를 통해 향후 1년간 진안군 예산·결산에 심의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장에 신갑수 의원이, 부위원장은 김민규 의원이 선출됐다.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이며,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임할 예정이다.

신갑수 예결특위 위원장은 "예산 및 결산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 헌반한분의 지혜를 모아 공공성과 효율성을 꼼꼼히 살피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신갑수 의원 김민규 의원

혔으며, 김민규 예결특위 부위원장은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